

## 《장연호전설》류형에 대한 이해

리 동 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설은 흔히 구체적인 역사적사건이나 인물, 지명과 결부된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전설은 많은 경우 환상적으로 펼쳐집니다. 전설은 비록 환상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속에는 인민대중의 념원과 생활감정, 그들의 재능과 지혜가 그대로 반영되어있습니다.》

(《김정일전집》 제3권 311페이지)

삼천리 아름다운 우리 나라에는 가는곳마다에 거기에 깃든 여러가지 전설들이 전해지고있다.

전설은 지난날 사람들의 생활과정에 있었던 여러가지 생활자료들과 결부되어 하나의 이야기로 창조되였다.

그러므로 전설에서 취급되는 인물, 사건, 유적유물 등은 실재한것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으나 그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실재한것처럼 형상되어있다.

전설은 대체로 창조된 이후 오랜 세기를 걸쳐 광범한 사람들속에서 부단히 보충, 윤색되었고 널리 전해지면서 하나의 전설이 내용상 일부 변화된 류사한 전설들로 전이되어 퍼지게도 되였다.

이렇게 처음에 창조된 전설과 전이된 전설들로 하나의 류형을 이루게 된 대표적인것이 《장연호전설》류형이다.

이 전설들은 주로 우리 나라 여러 고장들에 있는 호수나 늪, 못들과 그 주변에 있는 바위와 관련된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장이름사전》[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주체91(2002년)]에 수록되어 전해지고있는 우리 나라 여러 지방들의 지명전설들가운데서 《장연호전설》류형에 대하여서만 서로 비교해보려고 한다.

함경북도 어랑군소재지에서 동쪽으로 얼마쯤 가느라면 산골짜기를 랑옆에 끼고 동서로 길게 뻗은 호수가 있다.

이 호수를 가리켜 《장연호》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옛날에는 이곳이 호수가 아니라 기름진 옥답이었다고 한다.

이 기름진 땅을 이 마을의 지주인 장지부가 독차지하고있었다.

장지부는 욕심이 사납고 지독한 각쟁이로 온 마을에 소문이 난 지주였다.

그놈이 어찌도 린색한지 집에서 부려먹는 머슴들은 물론이요 아들, 며느리까지도 끼니마다 먹는 량을 통제하군 하였다.

어느날이었다.

삿갓을 푹 눌러쓴 종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장지부네 집대문을 열고 들어와 시주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내가 먼길을 가다가 식량이 떨어져 그러니 어른께서 좁쌀 몇말만 주소이다.》

그 말을 들은 장지부는 불에 덴 송아지처럼 펄쩍 뛰었다.

《뭘? 쌀을 달라구? 이런 럼치 없는놈을 봤나. 우리 집엔 흉년이 들어 좁쌀 한알 없으니 판데나 가보게.》

중은 목탁을 두드리면서 또다시 말했다.

《이 마을을 둘러보니 모두가 가난한 백성들이라 쌀 나올 집은 없고 그래두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쓰고사는 이 집에 쌀이 있을것 같아 찾아왔으니 어서 쌀을 좀 주시오.》

장지부는 마루우에 올라서서 발을 탕탕 구르며 소리쳤다.

《어디서 이따위 거렁뱅이가 기여들어 쌀을 내라고 야료질이나. 우리 집엔 너같은 중놈에게 줄 쌀이 없으니 당장 나가라. 당장!》

그래도 중은 목탁을 두드리면서 말했다.

《나는 당신이 쌀을 줄 때까지 계속 찾아올테니 그리 아시오. 그러지 않다가는 천벌을 받을수 있소.》

그래도 장지부는 목을 뒤틀고 앉아 코방귀만 똥똥 됄다.

그다음날도 또 이렇게 련 사흘째 련이어 중은 장지부를 찾아와서 쌀을 달라고 하였지만 지독한 장지부는 끝끝내 주지 않았다.

결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장지주의 둘째 며느리는 욕심사나운 시아버지가 노는 꼴이 너무도 민망스러워 집안사람들 몰래 빈손으로 돌아가는 중을 따라나와서 보리쌀 한되박을 보자기에 싸서 주었다.

그것을 받아든 중은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다.

《쌀을 주어 고맙네. 이제부터 내 말을 명심해서 들으라구. 이제 내가 가면 이 집에 무슨 일이 생길거네. 그래서 내가 가면서 막대기로 금을 그어놓을테니 그것을 따라 곧추 오라구. 그러되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로 돌아다보아선 안되네. 알겠나?》

《명심하겠사와요.》

《그럼 다시 만나자구.》하고 중은 돌아갔다.

중이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갑자기 장지부의 집 부엌바닥에서 썸이 터져나와 순식간에 강물처럼 팔팔 흘러내렸다.

그 광경을 본 며느리는 제격 아이를 업고 자그마한 보따리를 이고 집을 나섰다.

그가 집을 나서니 과연 중의 말대로 막대기로 그어놓은 금이 뚜렷하게 보였다.

며느리는 허둥지둥 금을 따라 다급히 걸어갔다.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둔덕에 올랐을 때 갑자기 뒤쪽에서 《짜르릉》하고 천둥소리가 나면서 우지끈하고 무엇인가 부서져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며느리는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중의 간곡한 당부를 깜빡 잊고 뒤를 돌아다보았다.

그의 눈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고래등같은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온 골짜기를 메우며 물이 넘쳐나서 장지부의 땅을 모조리 물속에 잠그어놓았던것이다.

그때 또다시 번개가 번뜩이며 우뢰소리가 울리자 뒤를 돌아보던 며느리는 그대로 바위돌로 굴어지고말았다.

이때부터 이 골짜기에 호수가 생겼는데 이곳 사람들은 장지주의 땅이 호수로 되었다고 하여 《장연호》라고 부르게 되었고 녀인이 애기를 업은 채 호수가에 서있는 바위를 《애기바위》라 불렀다고 한다.

지금까지 《장연호전설》류형이 우리 나라의 여러 지방들에서 전해지고있는데 그러한 전설들로는 평안남도 북창군 연류리의 《각시벼랑전설》, 함경남도 단천시 룡연리의 《번개늪전설》, 함경남도 요덕군 인화리의 《각시바위전설》, 자강도 희천시 청하동의 《애기바위전설》, 자강도 시종군 로남리의 《애기바위전설》, 자강도 성간군 신청리의 《신청늪전설》, 황해남도 벽성군 죽천리의 《터진메기골전설》, 황해남도 안악군 관북리의 《절골전설》, 황해북도 금천군 문명리의 《장자못전설》, 황해북도 신평군 고읍리의 《룡바위소전설》, 황해북도 토산군 월성리의 《장자울전설》, 평양시 형제산구역 상당동의 《애기바위전설》, 황해북도 상원군 대천리의 《한우물전설》 등을 들수 있다.

이 가운데서 《장연호전설》이 대표적이면서도 기준으로 되는 전설이라고 볼수 있다.

그것은 우선 《장연호전설》이 그 류형보다 이야기줄거리가 비교적 째여져있기때문이다.

현재 전해지는 이와 류사한 여러가지 전설들은 이야기줄거리가 째여져있지 못하며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서 일부는 빠지거나 달라진것들도 적지 않다.

그것은 또한 《장연호전설》이 그 류형보다 인물관계가 명백하고 펼쳐진 생활세부가 생활론리에 잘 맞게 맞물려져있기때문이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이와 류사한 전설들을 《애기바위전설》류형이라고 하였다.

대표적으로 《조선구전문학연구》[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8(1999)년]에서는 이런 전설들을 《애기바위전설》들이라고 하였다.

이 전설들에서는 린색한 지주놈이 중의 《신적인 조화》로 하여 징벌을 받아 그놈이 살던 집자리가 호수나 늪 또는 못으로 변화되었다는것이 기본이야기의 골자이다. 즉 주로 호수나 늪, 못의 발생과 결부되어 전해지고있는것이 이 류형전설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런데 실지 지금까지 여러 지방에서 전해지고있는 《애기바위전설》들은 호수나 늪가에 있는 바위들에 대한 이야기인것이 아니라 보통 산기슭에 있는 바위들에 대한 전설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애기바위전설》을 대표적인 전설로 보기는 힘들며 따라서 이 류형을 《장연호전설》류형이라고 부르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장연호전설》류형은 이야기의 기본줄거리상에서는 서로 류사하다. 즉 이야기의 시작으로부터 그것이 전개되고 해결되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것이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하여서도 대체로 해당 지방들에 있는 호수나 늪, 못들과 그 주위에 있는 바위들과 련결되어있다.

그것은 전설들이 구전으로 창작되어 전해지는 과정에 서로 류사한 지형이나 지물들에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여러가지 변이를 나타내지만 그 기본적인 줄거리상에서는 서로 류사성을 띠기때문이다.

전설의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이야기의 기본줄거리에서는 서로 류사성을 나타내지만 《장연호전설》류형의 매개 전설들의 구체적인 세부들에서는 일련의 차이를 나타내고있다.

무엇보다도 전설들이 각이한 이름으로 전해지고있다.

《장연호전설》류형은 자강도 희천시 청하동과 자강도 시종군 로남리, 평양시 형제산구역 상당동의 《애기바위전설》로, 평안남도 북창군 연류리와 함경남도 요덕군 인화리의 《각

시바위전설》로 전해지고있다. 또한 함경남도 단천시 룡연리의 《번개늪전설》, 자강도 성간군 신청리의 《신청늪전설》, 황해북도 금천군 문명리의 《장자못전설》, 황해북도 신평군 고읍리의 《룽바위소전설》, 황해북도 토산군 월성리의 《장자울전설》, 황해북도 상원군 대천리의 《한우물전설》 등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황해남도 벽성군 죽천리의 《터진메기골전설》, 황해남도 안악군 판륙리의 《절골전설》로 전해지기도 한다.

다음으로 서로 다른 대상들에 대한 전설들로 전해지고있다.

자강도 희천시 청하동의 《애기바위전설》, 자강도 시중군 로남리의 《애기바위전설》, 평양시 형제산구역 상당동의 《애기바위전설》은 해당 지역에 있는 애기를 업은 여인과 비슷한 바위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해지는 전설들이며 평안남도 북창군 연류리의 《각시벼랑전설》, 함경남도 요덕군 인화리의 《각시바위전설》은 해당 지역에 있는 여인의 모습과 유사한 벼랑이나 바위에 대한 전설들이다.

그런가 하면 함경남도 단천시 룡연리의 《번개늪전설》, 자강도 성간군 신청리의 《신청늪전설》, 황해북도 금천군 문명리의 《장자못전설》, 황해북도 신평군 고읍리의 《룽바위소전설》, 황해북도 토산군 월성리의 《장자울전설》, 황해북도 상원군 대천리의 《한우물전설》들은 자기 고장에 있는 늪이나 못에 대한 전설들이며 황해남도 벽성군 죽천리의 《터진메기골전설》, 황해남도 안악군 판륙리의 《절골전설》은 자기 고장에 있는 골안에 대한 전설들이다.

다음으로 전설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생활세부, 이야기의 결속에서 일련의 차이를 나타내고있다.

대부분의 전설들에서는 기본인물들인 중과 지주, 며느리가 그대로 설정되어 전해지고 있으나 황해북도 금천군 문명리의 《장자못전설》에서는 중이 아니라 거지를, 지주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종살이하는 여인을 등장시키고있다. 함경남도 단천시 룡연리의 《번개늪전설》에서는 지주대신에 고약한 시어머니를, 중대신에 지나가던 나그네를 형상하여 이야기를 펼쳤으며 평양시 형제산구역 상당동의 《애기바위전설》에서는 중을 신선으로 형상하였다. 그런가 하면 황해남도 안악군 판륙리의 《절골전설》에서는 보통의 중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인 서산대사를 내세웠다.

전설의 일부 세부들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있다.

대부분의 전설들에서는 동냥을 하는 중에게 마음씨고운 지주집며느리가 흰쌀이나 보리쌀을 주는것으로 되어있지만 자강도 희천시의 청하동의 《애기바위전설》에서는 지주가 동냥을 하러온 중에게 쌀대신에 소똥을 동냥주머니에 넣어주는것으로 지주의 심보를 더 고약하게 형상하였다.

이야기의 결속에서도 일련의 차이를 나타내고있다.

대부분의 전설들에서는 심보가 고약하고 린색한 지주가 천벌을 받아서 그의 집터가 호수나 늪 또는 못으로 변화되는것으로 이야기를 결속하고있으나 황해남도 벽성군 죽천리의 《터진메기골전설》에서는 중이 일으킨 《조화》로 산사태가 일어나 지주의 집자리가 하나의 골짜기로 변한 이야기로, 황해남도 안악군 판륙리의 《절골전설》에서는 실재한 인물이었던 서산대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린색하게 노는 지주의 집터에 해묵은 나무가 솟아나게 《조화》를 부려서 골탕을 먹이는것으로 이야기를 결속하고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 여러 지방들에서 전해지고있는 《장연호전설》류형은 인민들속에 구

전으로 전해지면서 자기 지방의 향토적특성과 인민들의 감정에 맞게 윤색되어 일련의 차이를 나타내고있다.

《장연호전설》류형에는 비록 비현실적인 환상적이야기를 전하고있지만 여기에는 한알의 쌀도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린색하게 놀다가 멸망하고야마는 지주의 형상을 통하여 인민들을 억압착취하며 탐욕과 린색으로 가득찬 지배계급들에 대한 인민들의 끝없는 증오심과 그놈들을 통쾌하게 징벌하고야말려는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이 잘 반영되어있다.

뿐만아니라 전설들에서는 사람들에게 악행을 일삼으면서 못된짓만 하는 지주놈과 같은 놈들은 반드시 멸망을 면치 못하며 사람들에게 덕행을 베푸는 마음씨고운 지주집머느리나 종살이를 하는 녀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그 어떤 불행속에서도 구원된다는 중세 우리 인민들의 권선징악의 리념도 생동한 화폭으로 잘 펼쳐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장연호전설》류형에는 중의 《신적인 힘》이나 《조화》와 같은 중세기적환상을 통하여 당대 인민들의 념원을 실현하려고 하는것과 같은 제한성도 있다.

물론 황해북도 금천군 문명리의 《장자못전설》에서와 같이 중이 아니라 거지로, 지주집의 머느리가 아니라 종살이하는 녀인으로 이야기되면서 보통사람의 기지와 신적인 《힘》으로 지주에게 골탕을 먹이는 환상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설들은 중의 이른바 《신적인 힘》으로 자기들의 념원을 실현하려는 중세 인민들의 지향을 담고있다.

중을 선의 체현자로 리상화하고 당대 인민들의 리상의 대변자로 설정한것은 불교가 성행하던 중세사회생활의 반영으로서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힘으로가 아니라 부처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중세사람들의 세계관적제한성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제한성은 있지만 《장연호전설》류형은 자기 고장들에 있는 자연풍물에 의거하여 서로 도와주는 화목한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사람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안겨주는 착취계급에 대한 증오, 그 멸망을 생동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귀중한 전설유산, 문학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 지방들에서 전해지고있는 우리 나라 전설유산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 깊이있게 진행하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지게 함으로써 누구나 자기가 사는 고장에 대한 애착심을 지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장연호전설, 애기바위전설